

공공주택 신희 특공 소득 140%까지...1~2인가구 문턱 낮춰

오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인 가구 소득 기준 20%p·2인 가구 10%p 상향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입주예약자’ 모집 혼인신고 이전 출산 신희부부도 1순위 자격 부여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 청약에서 신희부부는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에서 신희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 소득요건 기준은 100%(맞벌이 120%) 이하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

우 100%는 월 555만원, 120%는 월 667만원, 130%는 월 722만원, 140%는 778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라도 신희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청약제로 선정한다.

아울러 신희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청약제로 선정한다.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해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등의 주택공급확충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도 마련했다. 현재는 동일 순위에서 경쟁 시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만 우선 선정할 수 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장기요양 등급도 고려해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혼인신고 이전 출산한 자녀를 둔 신희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혼인기간 중 출산한 신희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희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합격사과·황금란 드세요 모델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하나로마트 양재점서 수험생 건강을 위한 우리 농산물인 ‘합격사과’와 ‘황금란’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농협유통 계공)

‘술 줄이는 한국인?’...주류 출고량, 2014년 이후 내리막

2019년 338만kl 출고 5년 전보다 11% 줄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주류 출고량이 매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종별 감소율은 ‘위스키’가 가장 컸고, ‘희석식 소주’가 가장 작았다.

국세청이 11일 내놓은 2020년 국제 통계 제2차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2019년 국내 주류 출고량은 337만 7000kl다. 전년 출고량(343만6000kl) 대비 1.7% 감소했다. 2014년(380만 8000kl)과 비교하면 감소율은 11.3%에 이른다. 연간 주류 출고량은 2015년 380만4000kl→2016년 368만kl→2017년 355만1000kl→2018년 343만6000kl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9년 출고량을 주종별로 보면 ‘맥주’ 171만6000kl, 희석식 소주 91만 6000kl, ‘탁주’ 37만1000kl, 기타 주류 2만9000kl, 위스키 70kl 순이다. ‘그 외’는 34만5000kl다. 전년 대비 감소 폭이 가장 큰 주종은 위스키(-42.9%)

다. 2014년 대비 감소율도 92.1%로 모든 주종 중 가장 높았다. 주종별 감소율은 맥주(16.5%), 탁주(14.0%), 희석식 소주(4.4%), 그 외(4.0%) 순이다.

다만 모든 주종의 출고량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기타 주류 출고량은 2014년 3000kl에서 2019년 2만9000kl로 786.1% 급증했다.

한편 2019년 현금 영수증 발급 총액은 118조5762억원으로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6.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현금 영수증은 총 45억 건(국민 1인당 87건 가량), 건당 2만6000원 발급됐다. 업체별로는 소매업(25억7072만 건·57.0%), 음식점(2억8506만 건·6.3%), 병의원(8373만 건·1.9%)에서 많이 발급됐다.

2019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78만7438곳이다. 이 중 중소기업 법인이 70만3942곳으로 89.4%를 차지

했다. 같은 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감면액은 1조2604억원이다. 전체 중소기업의 31.7%를 차지하는 22만3129곳이 법인세 감면을 받았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 9535억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891억원, 창업 벤처기업 세액 감면 809억원 순이다.

2019년 증권거래세 과세 표준액은 2364조원, 산출 세액은 4조4957억원이다. 산출 세액 중 유가 증권 시장 주권이 1조3274억원, 코스닥 시장 주권은 2조838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양도소득세 조사 건수는 4100건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고, 부과 세액은 3509억원으로 3.0% 증가했다. 부동산 관련 부과 세액(3105억원)이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2019년 해외 금융 계좌자는 2685명이 총 59조8990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223억원 꼴이다. 1인당 신고액은 42억원, 법인 1곳당 신고액은 652억원이다. 신고 계좌 수는 1만8566개로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집에 미니편의점 차린다”...과자선물세트 인기

재택·집콕 문화 확산하면서 간식 구독시장 빠르게 성장



1980~1990년대 추억의 종합과자 선물세트가 부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재택·집콕 문화가 확산하면서 간식 구독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과자는 물론 초콜릿, 껌, 컵라면, 음료수 등 다양하게 구성 돼 있다. 진열대 형식의 종이상자로 디자인해 ‘미니 편의점’을 연상케 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인 벤디스는 ‘간식대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출시 9개월 만인 이달 초 누적판매량 20만개를 돌파했다. 5개월 만에 10만개 판매를 넘어선 후 4개월 만에 세운 기록이다. 지난 달은 하루 평균 1000개씩 팔리며 월 매출 10억원을 달성했다.

벤디스는 기업용 모바일 식권인 ‘식권대장’을 운영하며 많은 기업들이 간식 복지를 운영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초기에는 사무실에 편의점 매대를 설치해 간식을 채워주는 서비스로 시작했다. 올 초부터 코로나19 확산 속 고객 니즈를 파악해 선물세트 형태의 간식대장을 선보였다.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회사와 학원 등에서도 찾기 시작해 판매량이 늘었다. 공용 공간에 간식을 비치하거나 선물 목적 등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오리는 ‘#간식이필요해’ 3종은 지난달 누적 판매량 8만5000세트를 돌파했다. ‘편리미엄’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전용으로 출시했다. 오리온 인기 과자들을 ‘모두의 간식’

‘초코가 필요해’ ‘입이 심심해’ 총 3가지 콘셉트에 맞춰 패키지에 담았다. 출시 한달 만에 2만5000세트를 판매했으며, 6월과 9월에는 일주일 이상 품절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해태제과는 과자선물세트 2종은 지난달 출시 일주일 만에 초기 물량 9000박스가 모두 팔렸다. ‘회사원의 사랑장’은 칼로리바라, 자유시간, 연양갱 등 2030 직장인에게 인기있는 간식 8가지로 구성했다. ‘평등 시네마인’은 흡사어터 죽을 겨냥해 휴대전화 거치대와 집플러로 변신하는 상자에 휴대폰, 에이스 등 8가지를 담았다. ‘다이어터의 사랑장’ ‘수험생의 사랑장’ 등 시리즈를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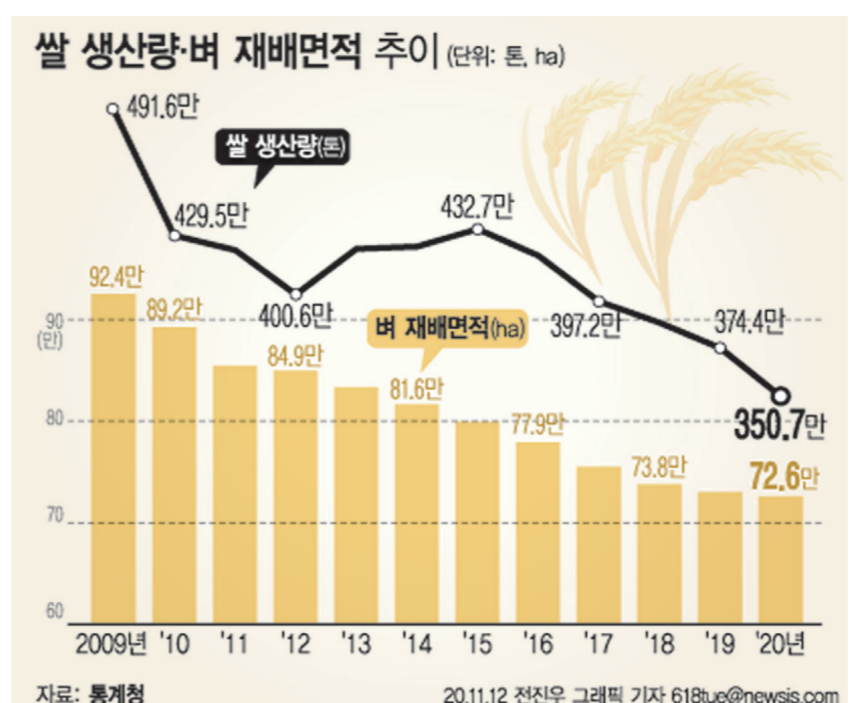
종합과자선물세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더욱 인기다.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출시해 ‘커와오복 선물하기’ 등으로 간편하게 주고 받을 수 있다. 뉴트로 감성을 더해 소장, SNS 인증 욕구도 자극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사무실, 학원 등에서 간식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며 “진열대의 실용성이 높아 포장, 보관, 진열이 한 번에 가능하고 선물로 주고 받기에 부담이 없다. 기획상품, 정기 구독서비스 등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정기자

역대급 장마에 쌀 생산량 51년 만에 최저...“가격 상승 불가피”

작년보다 6.4% 줄어 350만t 불과...1968년 이래 최저



올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5년 연속 감소하며 5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0만7000t으로 전년(374만4000t) 대비 6.4%나 줄었다.

국내 쌀 생산량은 지난 2015년 433만t을 기록한 이래 5년 연속 감소세다. 통계청이 쌀 생산량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5년(350만1000t)과 1968년(319만5000t)에 이어 역대 3년

남게 줄었다.

재배면적은 72만6000ha로 전년의 73만ha보다 0.5% 감소했다. 재배면적이 줄면서 10a(1000㎡)당 생산량이 줄어 올해 10a당 생산량은 484kg으로 전년(513kg)보다 5.9% 적다.

통계청은 “건물건축과 공공시설 등 택지개발에 따른 경지감소와 정부의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날씨가 형성되는 시기 긴 장마와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일조 시간 감소와 강수량 증가 등 기상여건 악화로 완전날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올해는 기상 관측 이래 장마가 가장 길었다. 이로 인해 7월 상순부터 8월 상순까지 일조시간은 134.5hr(아워, 총시간)로 작년(258.8hr)에 비해 48.0% 줄었고, 반대로 강수량은 698.6mm로 작년(252.5mm)의 3배가 넘었다.

벼 낫알이 익는 시기인 9월에는 일조량이 증가하긴 했으나 9월 초 태풍의 영향과 평균기온이 낮아 10아르(a)당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 쌀 생산량도 모두 감소한 가운데 강원은 12만7000t으로 작년(15만1000t)보다 15.6%나 줄었다. 전남(68만8000t), 충남(67만8000t), 전북(55만6000t), 경북(49만5000t), 경기(34만8000t), 경남(31만4000t) 순으로 생산량이 많았지만 작년보다 줄어든 양이다.

김희희기자